

## 오피니언

## 다산포럼

김민환



마산에서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는 의거가 터지자 부산문화방송은 생중계를 하듯 이 사태의 주인을 보도했다. 경찰이 방송 기자의 보도를 방해하자 방송사 기자들은 뉴스테이프를 방송사로 직접 가지고 가지 않고 자매 언론사인 부산일보로 보내 방송사로 전달하게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4·19의 거사를 부산과 경남 일원에 방송되었고, 결과적으로 의거가 대구로, 서울로 번져가게 됐다.

4월혁명이 성공해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자 부산문화방송의 경영주 김지태는 부산지역에 한정하는 방송 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961년 서울에 문화방송을 설립했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종합매스컴센터 설립에着手했다.

쌍용그룹 설립자 김성근이 경영하던 '연합신문'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한편, 영화산업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기로 하고 안양의 영화촬영소를 은행 채무를 암는 조건으로 사들이는 교섭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당찬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김지태를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했다. 결국 김지태는 그가 소유한 언론사 지분을 모두 국가에 헌납한다는 각서를 쓰고 풀

려났다. 그 뒤 그의 언론사 지분은 5·16장학재단에 넘어갔다.

이 장학회는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 다시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박정희·육영수의 이름에서 한 자씩을 따온 명칭이었다. 이 재단은 MBC 문화방송 지분 30%(6만 주), 부산일보 지분 100%(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법

오늘 균부독재가 막을 내리자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보유의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이야기가 제기되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를 '장물'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마침내 노무현 정권 하에서 발족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다.

이 위원회는 2007년 6월, 국가 공권력의 강요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보유의 정당성을 국가기구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에 따라 김지태의 유족이 정수장학회 보유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올해 2월 국가기관의 감안에 의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반환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항소를 제기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주식지분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정 법으로 따지자면 정수장학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정수장학회 이사회가 결

다고 하면 곧이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꼼수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현 단계에서 정수장학회가 할 일은 언론사 지분보유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장학회 이사진의 총사퇴와 명칭 변경 및 개편을 전제로, 이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일이다. 기구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은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 여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 의원도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법리만 내세워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 그는 이 장학회의 최고 책임자를 10여년 맡았고, 현재의 장학회 이사장도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에 대한 평가의 준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가 이 단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가기구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국민은 박 의원의 도덕성이나 국가관, 역사인식 등에 대해 다시 의문을 느낄 것이다.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풀 의사가 있으나 현 이사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국민은 그의 소통능력이나 국가경쟁능력에 대해 회의를 느낄 것이다. 두고 볼 일이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NGO 칼럼



정세연

## 폭력과 차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가길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와 사회·경제·문화·여가·교육·고용 부분의 사회적 차별의 실태는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피해에 노출된 여성장애인들의 마음속에는 장애가 깊은 상처로 자리하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정신적 장애를 동반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차별이며 부당한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는 감수성마저 약해져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다.

1990년대를 전후로 과거 전통문화관습과 유교사상 속에서 침해당한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당사자들의 외침과 인권활동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었고, 그동안 드러나지 못한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들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많은 정책이 개발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여성장애인을 소중한 생명체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겨진다.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설치와 장차법, 성폭력특례법의 신설 및 개정, 출산지원정책 및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사업 등이 그 성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나 인권침해 범죄들은 법의 제재를 벗어날 만큼 치밀하고 고차원적으로 계획하여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 안타까움과 쓰쓸함만이 남을 뿐이다.

그렇다면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아무리 많은 정책이 개발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여성장애인을 소중한 생명체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는 여성장애인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

## 기고



고윤

## 귀농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첫째, 귀농 결심이 서면 지금 당장 빙밭농사나 주말농사를 시작하라. 정성스레 가꿔 텃밭에 열린 고추가 하루아침 단지에 문드리는 아픔을 경험해보라는 것이다. 결코 농촌생활이 만만치 않다. 좀 멀어도 좋으니 빙밭을 마련하고 아이들과 주말마다 교외로 나가보자. 옥상이 있다면 화분에 고추나 배추도 심어보자. 영농서적을 외우듯이 읽어보자. 귀농의 필수조건이다.

둘째, 귀농교육을 받고 정보를 모아라. 귀농 준비를 하는 순간 귀농은 이미 시작되었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귀농학교에 참여하여 많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농사는 원래 하늘이 짓는 것이라고, 이웃의 도움이 없는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셋째, 철학적 고민과 정신적 무장이 필요하다. 귀농은 나와 내 가족의 생활양식이 농촌생활에 어울리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무수한 철학적 고민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도시 친구들에게 상추 한 박스를 팔아보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는 나의 수고와 땀을 모른다. 상추가 시들었다느니, 땅이 없다느니, 비싸다느니, 속상한 많은 이

아기들을 듣기 싫상이다. 농민들이 왜 수확철에 더 속이 터지는지를 빼놓지 않게 된다. 게다가 수해나 태풍이라도 얻어맞으면 그때 나오는 귀농이 행복하다 할 것인가? 나의 준비된 철학, 단단한 가치관이 필요하다.

넷째, 귀농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라. 귀농을 해서 도시생활과 같은 경제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엄청난 투자와 기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하는 조바심을 버려라. 자연이 주는 수많은 기쁨과 혜택이 또 다른 수입이다. 가끔, 성공사례가 소개된다. 부디 현혹되지 말라. 특출한 농사꾼 1~2%의 사례가 귀농자 모두의 것이 되기는 어렵다. 농사는 투기가 아니다. 한탕으로 되는 농사는 없다. 소를 규모 있게 키우거나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해보고 싶다면, 천천히 바닥부터 일을 익힌 후에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다섯째, 그 마을 사람이 되는 것. 귀농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귀농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은 없다. 스스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면사무소와 군청은 농촌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관계 직원과 가까이하면 상

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역할도 무시 못 한다. 도시에서 가급적 관공서 안 가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농촌은 관공서와 친해질수록 좋다.

농촌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다. 생활과 직결되는 산곡반부터, 동갑계, 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각종 모임, 오래 된 농촌조직도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정착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우선 평생을 빌려서 농사짓기를 권하고 싶다. 마을 어른들은 한해 농사하는 것 보고서야 이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믿는다. 그러나 첫해 농사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농지를 빌려주겠다는 사람, 내 땅을 싸게 사라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일년이면 앞 마을이나 산 너머 마을 정보도 얻게 된다. 진정한 귀농은 그 마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귀농과 전원생활의 차이도 여기에 있다.

마을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몸과 마음을 낮춰야 한다. 흙은 거짓이 없다. 땀 흘린 만큼 돌아온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기대는 아름다운 관계는 꼭 뿐만 대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즐거운 숙제다. 그 과정이 귀농이다.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장〉

## 과속 단속 회피 불법번호판 발 못 붙이게 엄단해야

불이고 다니는 악착빠른 행위였다. 과속을 일삼을 경우 그 피해는 선량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율러 다른 운전자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운전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한적한 지방도나 도심 변두리에서 운전하다 보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번호판이 음악CD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가 활개를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이 180도 회전하는 전동회전 번호판이 있고, 버튼을 누르면 깊은 가림막 천이 내려오는 번호판도 있다. 속도 측정을 위해 이동식 카메라가 쏘는 레이저를 교란시키는 번호판도 있고, 속도를 높이면 공기 저항 때문에 자연스레 아래로 꺾이는 꺾이 번호판이 나온다는 오래되었다.

이렇게 경찰도 허를 내두를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불법 번호판의 문제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첫째는 범죄에 이 용될 수 있고, 무인 영상 단속을 회피할 목

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빙스니도 막지 못하고, 범죄에 방을 치우도록 한다.

얼마전에는 TV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니 이런 반사판 같은 것이 붙어있는 차량을 활용하자 차동차 번호 숫자 자체가 하얗게 나왔다. 불법번호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부착 운전자를 통해 판매자와 제조자를 함께 추적해서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야 할 것이다. ▲니운성·광주 남구 봉선동

## 시설

## 전남 쌀 생산 12% 감소, 최악의 흉작이라니

올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2%나 줄어드는 등 32년 만에 최악의 흉작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남지역 쌀 예상 생산량은 138만t으로 지난해 154만t보다 10.2%나 줄었다. 특히 전남은 전년도의 82만940t보다 무려 12.0% 감소한 72만949t으로 집계돼 냉해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198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전국 쌀 생산량이 407만4000t으로 지난해 422만 4000t보다 15만t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전남의 생산량 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쌀을 훌대해선 안 된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미망에 오히려 식량안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향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쌀 대책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 남구 주민 기만한 '눈가림 공청회' 해서야

광주시 남구가 현 청사부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해놓고 이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민족을 사고 있다. 남구는 지난달 용도변경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이미 2개월 전에 기존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을 바꾼 것이다. 매매가를 높이기 위해 미리 용도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여는 소동이다.

14일 광주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남구 봉선동 511번지 현 남구청사 부지인 2만2000m<sup>2</sup>의 용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거쳐 7월 15일 용도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남구청사 일대는 종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도시계획 위원회는 현 부지 인근 토지 1만3400m<sup>2</sup>의 용도 역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3만5400㎡로 확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남구는 봉선동 일대의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신축과 상업시설 집적 등으로 교통과 소음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고층을 높히 알고 있는 구청이 오히려 고층 개발을 조장한다는 것은 평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남구는 하루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해 최선의 부지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 無等鼓

한국 중장년에게 중국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가 리샤오룽(李小龍·1940~1973)이다. 사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무술 배우다. 홍콩에서 자란 그는 할리우드의 상업적 노하우가 겉돌여진 무술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리샤오룽의 전성기 영화가 한국 남성들에게 각인된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때문이었다. 당시 반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 정권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 대륙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봉쇄됐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접촉이 허용됐던 홍콩 영화가 중국문화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에게 홍전바오(洪金寶), 청룡(成龍) 등 홍콩의 액션스타가 중국 대중문화를 상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문화의 참맛을 한국인에게 전한 정경마리나는 아마도 영화 '흉카오탕'(紅高粱·붉은 수수밭·1987년 개봉)이 아닐까 싶다. 주연 배우

영화 만들어진 지 25년 만에 붉은 수수밭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원작 소설가인 모옌(莫言·57)이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노벨문학상은 중국 국적으로는 모옌이 처음이다. 노르웨이 한림원은 '모옌은

한국 중장년에게 중국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가 리샤오룽(李小龍·1940~1973)이다. 사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무술 배우다. 홍콩에서 자란 그는 할리우드의 상업적 노하우가 겉돌여진 무술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리샤오룽의 전성기 영화가 한국 남성들에게 각인된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때문이었다. 당시 반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 정권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 대륙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봉쇄됐다.